



학술정보관 첫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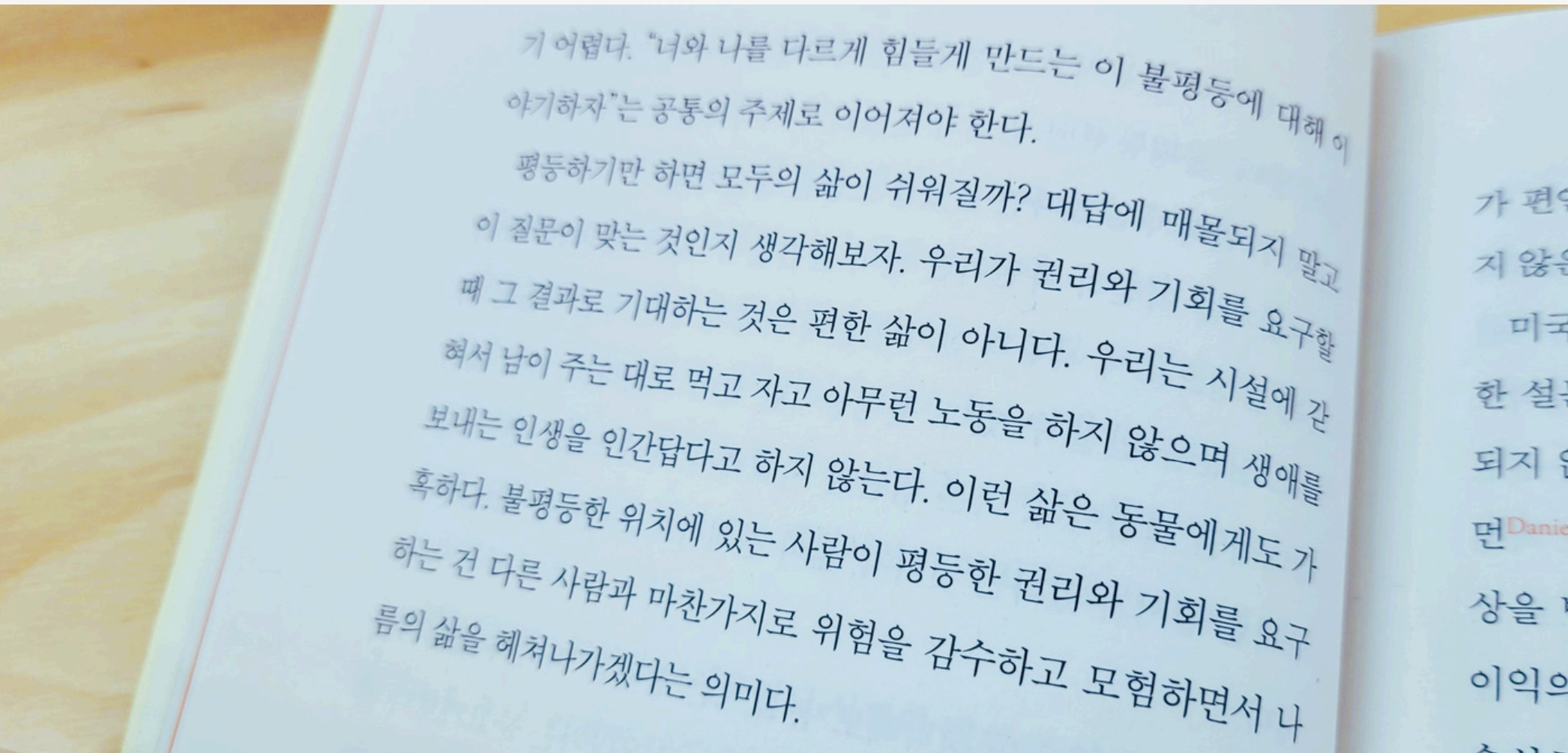
그래도 사랑하기

학술 정보관에는 가끔씩 찾아오곤 한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각양각색이다
가끔은 눈에 밝히는 책들을 찾아 읽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시험 기간에 쫓겨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사색에 잠기거나 고민을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냥 심심해서 이유 없이 찾아와 돌아다녀 보기도 한다

오늘은 우연히 혐오를 주제로 관련된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책들이라고 한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혐오가 혐오를 낳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한 주제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다니
저자들의 숭한 노고에
속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가 이 만큼 병들어 있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수 놓은 서적들



평등이란

고민 끝에 ‘선량한 차별주의자’ 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눈에 밝히는 내용은 평등에 대한 것이였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 성별, 종교, 장애, 출생지 등
수 많은 곳에서 파생된다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나온다면
이는 곧 서로 간의 혐오로 번질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를 혐오해야만 하는 것인가
적어도 인류 문명이 지속되는 한 존재하는 불평등 속에서는
영원할 수 밖에 없는 걸까

나는 그래도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란다고
지금 자신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다시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기 위해서
지금의 나부터 사랑하기를